

‘돈꽃’ 한소희 “욕먹는 게 좋아요”



사연 많은 악녀로 인기몰이

연기 어색하다는 반응보다 훨씬 좋아 할머니도 표독스럽게 잘 한다고 칭찬

연기자 한소희(25)는 시청자들로부터 “욕먹는” 반응이 싫지 않다. 오히려 쾌감을 느낀다. 시청률 20%를 돌파한 MBC 토요드라마 ‘돈꽃’에서 그는 배신당한 슬픔이 복수로 비취지는 캐릭터를 맡아 미움과 동정을 동시에 사고 있다. 한소희는 “촬영 전부터 제게 욕먹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재 죽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은 더 좋다”며 웃는다. 자신의 캐릭터를 잘 소화함으로써 얻은 결과로 받아들이는 중이다.

“연기가 어색하고 이상하다는 반응보다 훨씬 좋다. 사연이 있는 악녀이기에 불쌍함까지 전달된다면 목표달성이다. 하하! 할머니께서 양갈지고 표독스럽게 잘 한다고 칭찬해주신다. 인터넷이나 거리에서 제 얘기가 나오면 신기하다. 가끔 알아보고 사진 찍자고도 한다.”

높은 인기 속에 중영이 다가오면서 약간의 욕심도 나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내젓는다. “사실 신인이라 화면에 많이 나오고 싶지만, ‘본방사수’하는 시청자로서 연기, 연출, 편집, 대본, 음향 등 짜임새가 완벽해 잘 되길 바라는 더욱 마음이 크다.”

한소희는 캐릭터에 빠져들기 위해 24살에 자신을 낳은 엄마를 떠올렸다. 모성애를 표현

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극중 욕아 환경이 현실과는 다르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 젊은 엄마를 생각하면서 집중할 수 있었다. 한소희에게 ‘돈꽃’은 두 번째 작품이다. 2016년 한 광고를 통해 얼굴을 알린 그는 지난해 SBS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 연기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이제 두 작품이어서 작품마다 새롭다고 할 것까진 없다(웃음). 다만 비슷한 캐릭터라고 해도 그들의 인생이 같은 것은 아니니까 재밌다. 앞으로가 더 즐거울 것 같다”고 했다.

울산 출신인 한소희는 고3 겨울방학 때 부모에 “연기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2개월 치 월세만 들고 무작정 상경했다. 6년 전 일이다. 처음에는 지면광고 촬영이 전부였다. 우연한 기회에 영상광고에 출연하면서 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됐다.

“서울에 오니 모든 게 신기했지만, 월세 내기도 빠듯할 정도로 생활은 어려웠다. 너무 힘들어 ‘이 길이 맞나’ 생각도 들었지만, 먹고 살기 바빠 청승 떨 시간이 없었다. 죽을 정도로 힘든 건 아니었으니 버틸 수 있었다. 하하!”

어려웠던 과거는 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 한소희는 “예전에는 버스타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지금은 KTX 타고 다닌다(웃음). 부모님이 서울 오실 때 교통비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번다는 건 축복인 것 같다”며 미소 지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영기협 주최 ‘올해의 영화상’ ‘1987’ 작품상·감독상 2관왕



‘제9회 올해의 영화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설경구

영화 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영화는 장준환 감독의 ‘1987’이다. ‘1987’은 한국 영화기자협회 주최로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9회 올해의 영화상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2관왕에 올랐다.

본상과 특별상을 합쳐 14개 부문을 시상한 이날 남녀주연상은 ‘살인자의 기억법’의 설경구와 ‘아이 캔 스피크’의 나문희가 차지했다. 특히 나문희는 지난해부터 여러 영화상을 휩쓸면서 여우주연상을 차지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남녀 조연상은 ‘범죄도시’에서 개성 강한 연기를 펼친 진선규와 ‘더 킹’에서 열정적이면서도 정의로운 여검사 맡은 김소진이 차지했다. 연극으로 출발한 이들은 탁월한 연기력과 개성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청년경찰’ 박서준과 ‘박열’ 최희서는 한국영화를 이끌어갈 새 얼굴로 평가받으면서 신인상을 차지했다.

‘올해의 발견상’은 배우 윤계상이다. ‘범죄도시’에서 처음 맡은 악역으로 그는 흥행은 물론 수상 성과까지 안았다. 이 밖에도 독립 영화상은 조현훈 감독의 ‘꿈의 제인’, 외국어 영화상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링에트릭’이 차지했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신과함께’ 김용화 감독이 올해의 영화인상을 받았고, 롯데엔터테인먼트 최준식 과장은 올해의 홍보인상, SBS 미디어넷 김지혜 기사는 올해의 영화기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올해의 영화상 수상자(작)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한국영화기자협회 소속 59개 언론사 90여명 기자들의 투표로 선정됐다.

이해리 기자 go11024@donga.com

한국 시리즈 영화 명운 달린 ‘조선명탐정3’

3편 흥행 성적 좋으면 4편도 급물살 맥 끊긴 시리즈 영화 제작 부활 기대

영화 ‘조선명탐정:홍혈과마의 비밀’이 8일 개봉하는 가운데 후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2년 ‘가문의 영광5:가문의 귀환’ 이후 끊긴 한국 시리즈 영화의 흐름이 새롭게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기도 하다.

‘조선명탐정:홍혈과마의 비밀’은 2011년 ‘각시투구꽃의 비밀’과 2014년 ‘사라진 늑의 딸’로 이어진 시리즈의 3편적. 1편은 478만여명, 2편은 387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했다. 그만큼 각 작품이 힘을 발휘함과 동시에 시리즈에 대한 관객의 신뢰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데, 이는 3편 제작의 밑바탕이 됐다.

이에 따라 3편의 흥행 결과가 관심을 끈다. 만일 3편이 전편 못지않은 흥행의 결실을 맺는다면 4편 제작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자인 청년필름 김조광수 대표는 “현재로서는 계획한 바 없다”면서 “3편이 흥행한다면 4편 제작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



영화 ‘조선명탐정’이 세 번째 시리즈를 내놓으며 한국 시리즈 영화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사진제공 | 청년필름

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연출자 김석윤 감독도 “여러 가능성을 두고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명탐정’ 시리즈의 성공 여부는 맥이 끊긴 한국 시리즈 영화의 제작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조광수 대표는 ‘조선명탐정’ 시리즈가 “더 이상 관객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국 시리즈 영화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한국영화는 ‘장군의 아들’ ‘투깝스’ ‘여고괴담’, ‘공공의 적’ ‘조폭마누라’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 등 시리즈물을 선보여 왔다. 하지만 관객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2012년 ‘가문의 영광’ 5편 이후 시리즈 영화는 사라졌다. 각 후속편이 전편의 흥행과 ‘브랜드’에 따른 안정성의 ‘합성’에 빠진 결과라는 데 총무로 관계자들은 동의한다.

김조광수 대표는 “‘조선명탐정’ 3편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새롭게 등장시킴으로써 전편과는 다른 이야기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은 시리즈를 이루는 각 작품이 강한 개성으로 관객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현재 ‘여고괴담’ 6편과, ‘투깝스’와 ‘공공의 적’ 시리즈를 묶는 ‘투 대 강’(가칭, 투깝스 대 강철중) 프로젝트가 본격 제작을 위한 사전 작업 중이다. 모두 짧지 않은 기간을 거치며 이야기를 기다두고 있다. 전편과는 전혀 다른 또 한 편의 개성 강한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이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문화준에 등돌린 팬심...H.O.T 재결합 암초로

일부팬들 지지철회...보이콧 선언도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재결합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H.O.T가 2월 17-24일 MBC ‘무한도전’의 스피노프 개념으로 방송하는 ‘도토가3’를 통해 팬들과 만난다. 팬들 입장에서는 2001년 그룹 해체 이후 무려 17년 만에 다섯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억의 옛 노래를 부르는 모습만 상상해도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결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문화준과 일부 멤버 간의 불화설’이나 지난해 팬들 사이에서 불거진 ‘문화준 지지 철회’ 등 반감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어 멤버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H.O.T

단지 ‘도토가3’를 위한 일회성 재결합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비슷하게 재결합 수순을 밟은 썬스키스처럼 이를 계기로 시작하는 활동은 말처럼 쉽지않은 않다.

문제는 ‘문화준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다. 지난해 H.O.T팬들은 ‘H.O.T 갤러리’를 통해 문화준 지지철회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모든 활동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팬과 대중 기간, 무성악한 콘서트, 멤버 비하, 재결합과 관련한 경솔한 언행, 불법 굿즈 판매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일부 팬들이 문화준에게 등을 돌렸다.

당시 문화준은 소속사 SNS를 통해 “저의 잘못과 불찰로 팬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팬들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도토가3’를 통해 재결합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직후 일부 팬들은 “문화준이 왜 나오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숫자뉴스



레드벨벳 2집 리패키지 앨범이 해외 아이튠즈 종합 앨범차트 1위를 차지한 지역 수. 29일 오후 6시 공개된 앨범은 네덜란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카자흐스탄 파나마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의 아이튠즈 종합앨범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해시태그 킷



‘자기관리의 끝판왕’ 변정수

연기자 변정수가 자기관리의 ‘끝판왕’임을 보여 준다. 1974년생으로 40대 중반인 그는 지금도 쫓겨 땀을 유지하고 있다. 그 비결은 단연 운동이다. 추위를 뚫고 운동에 나선 그는 필라테스 사진을 공개하며 “모델 시절 몸은 꿈도 안 꾸는 글을 남겼다. 기구에 매달려 몸을 비틀며 허리 군살 제거에 열중하고 있다. 팬들은 “나이가 믿겨지지 않는다” “20대인 저보다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투아 #변정수 #자기관리 #엄지척

이 노래

아이유-김연아 ‘얼음꽃’

밴쿠버서 핀 얼음꽃 평창서도 다시 필까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며칠 남지 않았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전 국민의 위함이 하나로 모이고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일만 남았다.

그동안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이벤트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동계올림픽 종목 중 그나마 쇼트트랙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피겨스케이팅이나 실상종목은 비인기 종목이었다. 피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하나로 모은 계기가 바로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세계신기록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한 일이다. 이후 김연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기는 해가 바뀌어도 계속됐고 방송가에서는 김연아와 피겨를 모티브로 한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연아가 부른 노래도 큰 화제를 모았다.

김연아는 2011년 6월 가수 아이유와 함께 ‘얼음꽃’을 발표했다. ‘얼음꽃’은 밴쿠버올림픽에서 최고의 연기를 선보인 김연아의 눈물을 모티브 삼았다. 당시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여동생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듀엣은 아이유가 김연아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성사됐다. 평소 아이유의 팬임을 밝힌 김연아가 흔쾌히 응하면서 녹음이 일상천리로 진행됐다.

이민수가 작곡, 김이나가 작사한 이 노래는 아이유의 ‘진소리’ ‘좋은날’에 버금가는 인기를 끌 것이라고 예상됐고, 결과는 적중했다. 곡이 공개되자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 아이유와 그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김연아의 환상적인 하모니에 당시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당시 SBS 예능프로그램 ‘좋은날’에 버금가는 인기로 주제가곡으로도 쓰였다. 김연아와 아이유는 음원 수익금 7300만원을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전달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